

남구, ‘코로나19 재유행’ 마스크 지원 등 총력 대응

먹는 치료제 수급·관리 나서 마스크 12만5000장도 배부 “코로나 차단에 최선 다할 것”

광주 남구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 수급 관리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 220개

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파악 중인데 광주지역의 경우 7월 둘째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7월 넷째주부터 26명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8월 셋째주에는 7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코로나19 대책반 및 합동전담 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호흡기가 취약한 고령 인구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관내 요양병원을 비롯해 장기 요양

기관과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73곳과 경로당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 남구는 관내 감염 취약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맞춤형 컨설팅 및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 5000장을 관내 경로당 261곳에 긴급 배포했고 이번 주 중으로 마스크 12만장을 추가 구매해 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파스로

비드와 라게브리오 수급·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먹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의료급여 1·2종 수급 주민은 1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독서의달’ 맞이 독서문화 행사 북구, 5개 구립도서관서

광주 북구가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독서문화 행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독서의 달을 기념해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북구 구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는 ‘5g,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강연, 체험, 전시 등 44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세금 내는 아이들’ 저자 옥효진 작가와의 만남 △우리가족 원목 책꽂이 만들기 △가족 재활용 독서 소품 만들기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클레이로 만드는 추석 음식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 놀이 △노벨문학상 수상 도서 전시 등 9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운암도서관은 △우리 가족 독서 노트 만들기 △회원증 지갑 만들기 △예술가 일대기 도서 전시 등 8개 프로그램, 양산도서관은 △‘떨어져라, 떨어져, 찰떡폰!’ 저자 함지슬 작가와의 만남 △떡 모양 입욕제 만들기 △가을 여행 도서 전시 등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로켓 아이’ 저자 김민우 작가와의 만남 △아이와 함께 만드는 그림책 큐브 △추석맞이 연 만들기 등 10개 프로그램이 열린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주민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에 방문해 도서관별 세부 일정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구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지역에 책 읽는 문화가 확산돼 책으로 행복한 북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건강한 쌀밥으로 취약계층 지원 서구·농협광주본부, 업무 협약

광주 서구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쌀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착한도시 서구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750만원 상당의 고품질 쌀 20kg 125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구는 관내 7개소 경로식당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쌀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에 쌀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맛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에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농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착한도시 서구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을지연습 전시 현안 과제 발표 동구, 위기상황 대비 대책 마련

광주 동구는 2024 을지연습 기간 중인 20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전시 현안 과제 발표 및 토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시 현안 과제는 학동 중심사 입구 역의 적 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한 토론 훈련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의는 동부경찰서·소방서 등 5개 기관과 구청 3개 부서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다양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책과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을 제안했다. 이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개선·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전시 현안 과제 발표와 토의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위기상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첨단2동·광주청년회의소 MOU 취약계층에 음료 후원 등

광주 광산구 첨단2동이 지난 20일 광주청년회의소와 지역문제 해결과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채동훈 첨단2동장, 김상문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전창현 첨단2동 주민자치회 회장, 안병모 첨단2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교류·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대림이엔티와 ㈜농업회사법인 상남자식품은 지역 경로당 27개소 어르신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이웃(1인·중·장년세대)에게 170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를 후원했다.

채동훈 첨단2동장은 “4개 기관·단체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모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최근 광주 남구가 주월동 양우내안에 아파트 단지 앞 공간에 마련한 노랑 리본 야간 경관조명.

광주 남구 제공

남구, 세월호·이태원 참사 추모 ‘밤에도 빛나는 길’

백운광장 주변 푸른길 노랑·보라 리본 조형물 보행환경 개선 한몫

광주 남구는 21일 도시공원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최근 백운광장 주변에 있는 양우내안에 아파트 단지 앞 공간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갖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는 남구에서 지난 2021년 3월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

간을 조성한 곳으로, 남구 소유의 공공 공간이다.

남구는 지난 6월부터 보행자 통행 안전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에 나섰다.

현재 이곳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노랑 리본 조형물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보랏빛 리본 조형물 2개가 설치됐다.

또 각 조형물 옆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와 함

께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세웠고 노랑 리본과 보랏빛 리본 조형물은 야간 보행자를 위해 여름철 오후 7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30분까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밝히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푸른길 공원 야간 경관조명 개선은 이곳을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전달과 안전 감수성 제고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서구 소상공인들 ‘장사의 신’ 만나다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 초청 30일까지 2기 참여자 모집

광주 서구가 본격적으로 ‘장사의 신’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 20일 오후 서구청 들불홀에서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해 ‘가치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장사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제2기 장사의신 아카데미에 앞서 지역 소상공

인 및 매출증대 전략 및 홍보마케팅 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50여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나선 김유진 컨설턴트는 ‘한국형 장사의 신’, ‘장사의 전략’, ‘장사, 이제는 콘텐츠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으며 이날 단골 고객 만들기, 매출 상승 비법 등 수년간 경험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장사비법을 공유했다.

이어 서구는 오는 11월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 증대 전략’을 주제로 또 한 번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해 아카데미

1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행정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장사의신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규모는 총 40명이며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카데미는 오는 9월24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소상공인들의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강의로 진행된다.

정성아 기자